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 예고보도 (2023.3.27.)

4/4(화),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 2월 발표될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창립한 이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은 이 미션에 매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포럼을 열고, 경쟁교육 고통의 주요 원인인 대입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까지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려면 내년 2월까지 교육부가 발표할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대학관계자, 입시전문가까지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입시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입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른 시기부터 남을 이기기 위한 입시 대비 문제풀이 훈련을 치르고, 학부모는 고물가 여파에 치솟은 사교육비 부담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상대평가의 폐해가 발생하고,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 언론의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이 일상화된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교육이 희망을 여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제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발표해야 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하도록 국가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

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개편이 불가피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2월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학교교육을 정상화는 물론이고, 단체의 미션인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 포럼' 발족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족식은 학교교육을 개혁할 새로운 대입제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발족식은 4월 4일(화) 오후 3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 문제를 바로잡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나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대입 당사자가 함께하는 '위풍당당 2028 대입포럼' 발족식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3시~4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 대입 정상화 포럼 위원 소개
 - 대입 정상화 포럼의 취지 및 주요 사업 소개
 - 대입 정상화 포럼의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안내
- 유튜브 생중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www.youtube.com/@noworryTV>

2023. 3.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 (02-797-4044/내선번호 502)